

컴퓨터 犯罪

우리나라 컴퓨터설치대수가 汎用機와 小型機를 합해서 모두 2천1백대에 이르며 금년 말에는 3천대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용면에 있어서도 고도이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바야흐로 정보산업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범죄 역시 증가일로에 있으며 컴퓨터의 過失 惡用 등에 따른 사고의 영향범위 또한 현저하게 확대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때에 기업활동의 神經系라 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과 대량의 데이터가 집중되고 있는 컴퓨터 센터의 안전성 점검은 새로운 과제라 하겠다. 컴퓨터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의 기술적인 복잡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관계 전문지식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筆跡과 같은 증거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색 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째,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컴퓨터 회계監查를 본격적으로 도입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법인 컴퓨터活用監查는 상당



권영달
금융결재관리원 상무이사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 및 사전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실시하는 기업이 아직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컴퓨터의 출현이 인류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과 변혁을 주고 있다. 이미 컴퓨터없이는 사회활동 그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컴퓨터 관련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영향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빠르고 더욱 정확하며 더욱 편리한 컴퓨터 이용과정에 있어서 각종 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함께 활용이란 「전진적인 思考」와 防犯이란 「牽制的인 思考」를 여하히 조화있게 결부시킬 것인가 – 이것이 컴퓨터분야에 종사하는 시스템 엔지니어(System Engineer)들의 또하나의 과제인 동시에 시련이 될 것이다.